

## “사장님과 더불어 전 사원이 금연”

권 승 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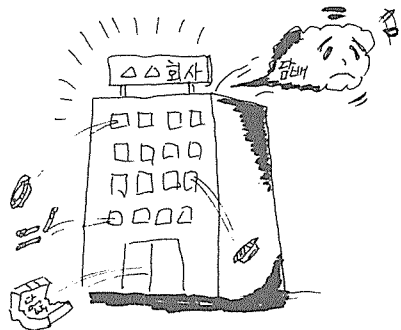
금연학교 132기는 다른 기와 달리 등록 첫날부터 복잡하게 붐비고 있었다. 그리고 호뭇한 분위기가 강의실을 가득히 매워 금연교육의 성공적 기운이 넘쳐 흘렀다.

이야기인즉 모 회사 사장님께서 솔선수범하여, 전 사원의 금연 의지를 굳게 묶어서 사원들과 더불어 첫날부터 열심히 강의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다. 강의시간에 이어 시청각교육 시간 시간마다 진지하고 숙연한 태도로서, 흡연습관에 젖었던 지난 날의 일들이 한 없이 어리석었음을 느낀 후회하는 기세였다.

그리고 흡연이 육체와 정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.

물리요법과 운동 요법시간에도 다른 기 때와는 달리 학습열의로 보나 교육 효과로 보나 정말 가슴 뿌듯한 시간들이었다. 매일 매일 강의시간에 정확하게 1명의 지각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석도 물론 없었다. 그러니 전원이 개근 수료자라는 기록도 수립했으며, 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원 금연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이다.

그래서 요즘은 회사 근무 분위기가 좋아졌을 뿐 아니라 맑은 산소가 가득



찬 공간 속에서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근무하게 되므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업무능률로서 회사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.

특히 사원 상호간의 매너와 에티켓의 기본적 문제인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서, 특별히 여사원들의 밝은 미소는 회사를 튼튼하게 키워가는 상징이라고 한다.

그리고 하루 한갑 600원, 한달 20갑분을 저축할 수 있으므로 사원전체의 친목회비로 적립할 수 있다고 한다. 금연해서 적립한 돈으로 상부상조는 물론 단합대회를 열어 즐거운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.

이 얼마나 좋은 계획이며 얼마나 보람있는 결과인가?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한번쯤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? 금연은 나와 우리의 동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.

〈서울위생병원 부설 5일금연학교 교수〉